

밀양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시민공모

시와 사진, 밀양이 춤추다



축사

상상창고를 마치며

- 다문화의 눈물 -

박서현, 시인

한 해가 서녘을 기웃 거린다.

벌써 산국화가 매혹적인 향기를 뿜어내는 가을에서 겨울로 발걸음을 옮겨 가는데, 쓸쓸히 강가 벤치에 걸터앉아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본다.

하루하루 시간이 흐른 초겨울 대문 앞,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왔을까? 순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오르는 일이 있다. 그것은 들꽃처럼 작고 소박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소쩍새가 울어대던 지난 봄, 밀양시민이 함께하는 “밀양시 문화특화조성사업 시민공모전”에 선정된 사업이다. 주제는 “시와 사진, 밀양이 춤추다” 이고, 부제목은 ‘상상창고’였다. 강사는 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진과 시가 어우러진 작품, 즉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짧은 시로 표현하는 디카시와 상통하는 작업이었다. 수업시간은 매주 일요일로 정했다. 시골에서 일부러 나오기가 쉽지 않은 다문화인들의 편리를 위함이라 교회 참석 날 수업을 받게 한 것이다.

그들은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시내에서 일본어학원을 운영하시는 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다.

첫 시간 자기소개로 시작했다. 한국에서 2~30년 동안 살면서 자녀는 3~4남매 정도이었으니, 인구절벽 시대 애국자는 바로 그들이었다. 놀라운 것은 수업하는 그들 가운데 시골에서 하우스농사를 지으면서 ‘효부 상’을 받은 분도 있었다.

시와 무관했던 그들은 내가 “할 수 있을까?”하는 공통적인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내게도 걱정은 있었다. 언어의 벽을 뚫고 어떤 방법으로 쉽게 전달해야 할까? 그러나 나의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다.

한글을 잘 아는 그들은 시를 쓰기에 손색이 없었다. 단지 시적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려웠으나 그 또한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전태옥 강사의 오랜 교회 생활에 그녀들의 상담자가 되어있으니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시가 멀리 있지 않음을 몸으로 실감했다. 기다림 속에 매주 그날은 가슴 찡한 보람 한 알씩 먹는 날이었다. 마지막 시간에는 각자의 소감을 발표했다. 언어의 벽에 부딪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고 하는 그들, 한 편의 자작시를 낭독하면서 흘렸던 눈물, 그 눈물에는 맵찬 의지와 보람이 섞여있었던 것 같다. 묵묵히 따라온 그들이 한없이 고마웠다.

수료증 수여식을 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가져보는 증표라고 가슴에 보듬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손길이 무심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의 시간도 갖게 되었다.

또한 시의 문턱을 낮춘 계기가 되면서 그들의 속마음을 끌어낸 시가 해천공원 주변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전시되었다. 이후 센터에서는 “밀양야행”이란 주제로 단합할 수 있는 사업팀마다의 특징을 살려 일을 추진했다. 하늘에 일을 어찌 알겠는가만 태풍으로 인해 연기되었지만 성공적인 시민의 단합이었다. 꿈처럼 선물처럼 주어졌던 시간들, 즐겁고 재미있었던 행복 나르기가 그들에게 기쁨의 날로 영원히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마음 발 넓은 곳에 희망의 시 한포기 심듯이.



박서현

(시인, 수필가, 시낭송가)



다문화와 시민

| | |
|-------------------|----|
| 고추 잠자리 / 구즈따와 가오루 | 8 |
| 노부부 / 구즈따와 가오루 | 9 |
| 빗소리 / 모로 마유미 | 10 |
| 노을을 보면서 / 모로마유미 | 11 |
| 둥지 / 박서현 | 12 |
| 휴대폰 / 손영희 | 13 |
| 선물 / 손영희 | 14 |
| 실잠자리 노래 / 전태옥 | 15 |
| 만어사 너덜경 / 전태옥 | 16 |
| 연꽃 / 이따노미애 | 17 |
| 거미줄 / 이따노미애 | 18 |
| 추억 / 이상관 | 19 |
| 계단 / 이상관 | 20 |
| 바다 / 예바 | 21 |
| 이민자의 그리움 / 이정화 | 22 |
| 늦둥이 / 이정화 | 23 |
| 이팝나무 / 하순자 | 24 |
| 양귀비와 별 / 하순자 | 25 |



히스토리 기자단

| | |
|---------------|----|
| 운동화 / 김민규 | 28 |
| 노을과 고래 / 박수언 | 29 |
| 별 / 박재동 | 30 |
| 무궁화 앞에서 / 박지훈 | 31 |
| 철새 / 송현주 | 32 |
| 버스 / 윤찬현 | 33 |
| 창 / 이미나 | 34 |
| 거미줄 / 정유진 | 35 |



꿈마중 기자단

| | |
|-----------------|----|
| 풍경 / 김시영 | 38 |
| 초승달 / 김현송 | 39 |
| 새싹 / 김태령 | 40 |
| 날개 달린 잠수함 / 홍채연 | 41 |
| 이슬 / 서종배 | 42 |
| 동반자 / 양경호 | 43 |
| 연꽃 / 장정순 | 44 |
| 사냥 / 정수근 | 45 |
| 가을 영글다 / 황여옥 | 46 |



다문화와 시민





고추잠자리

구즈따와 가오루 (일본)

온몸이 붉어지던 날
렌즈 귓전에 올라앉았다

여기일까 앞발로 툭툭
저기일까 고개 돌려 기웃기웃

추억의 뜰을 찾아
카메라 속으로 세상 끝 가고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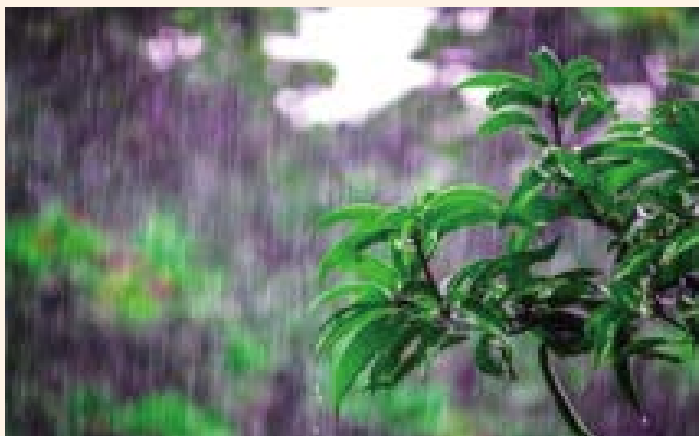
노부부

구즈따와 가오루 (일본)

무슨 이야기 하시나요

눈빛을 보면
음성을 들으면
후회되는 지난 일에 속만 탑니다

하지만
앞만 보고 살아온 당신이 최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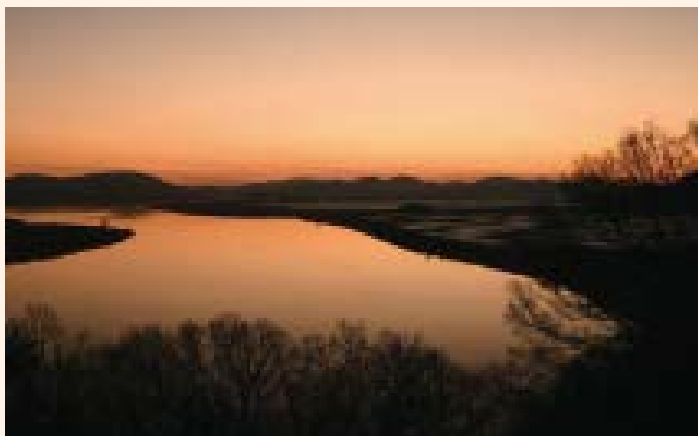


빗소리

모로 마유미 (일본)

어릴 때
장화를 신고 비를 따라다녔지
마른땅과
내 마음의 옷을 적시던 비

빗소리에 귀 기울이면
바다 건너 어머니의 기도소리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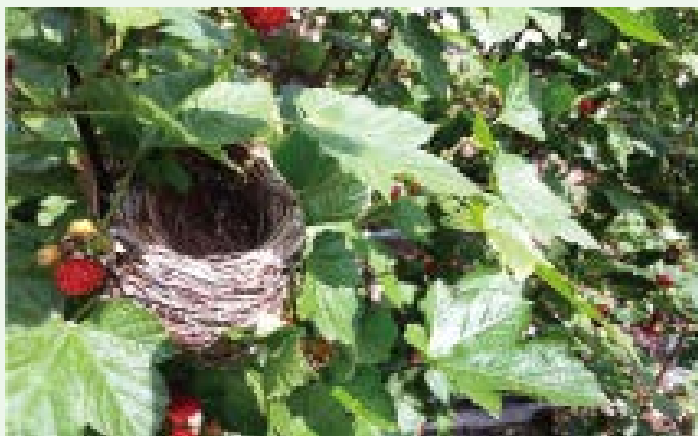
노을을 보면서

모로 마유미 (일본)

나의 뒷모습이다
소리 죽여 살아 온 지난 30년

가슴을 쥐어뜯어야 했던
저 속에 비치는 서러움은 눈물이다

슬픔 감사
주변의 따뜻함은 저리도 불어지는데...



둥지

박서현

햇살을 딛고 선 둥지 하나

여린 깃을 펴고

뺨속까지 아파야하는 외줄 타기를 떠난 것일까

종종걸음으로 떠났을

빈 둥지의 사연을

바람의 손은 부지런히 받아쓰고 있다.



휴대폰

손영희

나를 찾아
두 손 안에서 펼쳐본다
친구도 있고 아버지도 동생도 그 속에서 만난다

우주를 한 손에 쥐고
홀로이 뒤적이는
손안에 휴대폰은 도시의 외로운 방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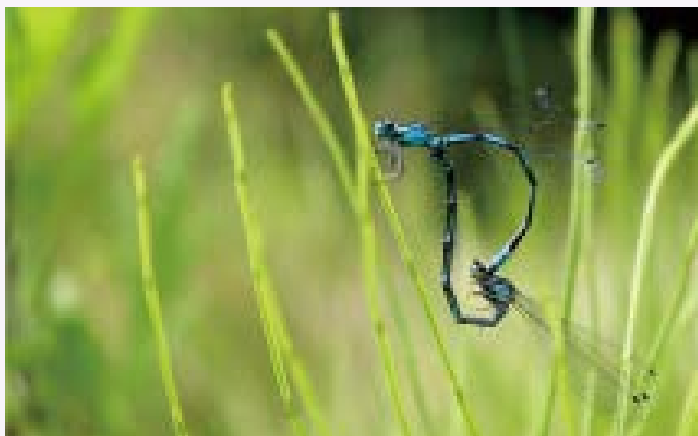
선물

손영희

상자 뚜껑을 연다
소복하게 선물이 들어앉았다

힘들어할 때 위로의 말 한마디
보고플 때 주르륵 눈물
잘 살고 있다는 동창생의 편지

내 하루 선물상자는 따뜻한 행복주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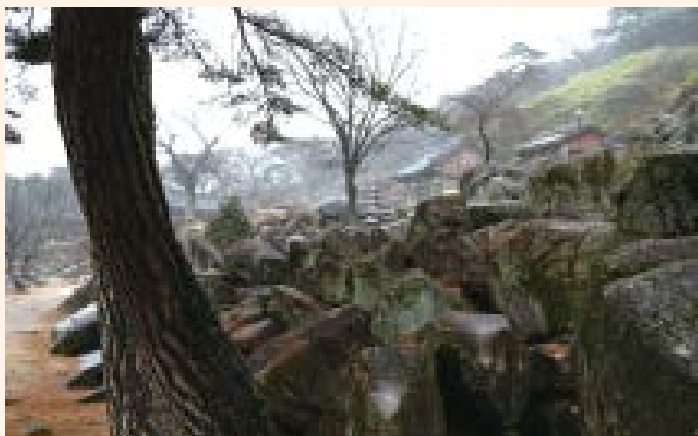
실잠자리 노래

전태옥

아침 이슬에 은하수 내리고
개구리 놀라 풀 바다 속으로 몸을 던지네

물풀의 허리를 잡은
실잠자리는
영혼의 허기에 그리움 내려놓고

아! 그곳에 살고 싶다



만어사 너털경

전태옥

소리 들린다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그곳에 가면

마고할미 요술에 묶여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 떼

청아한 종소리에 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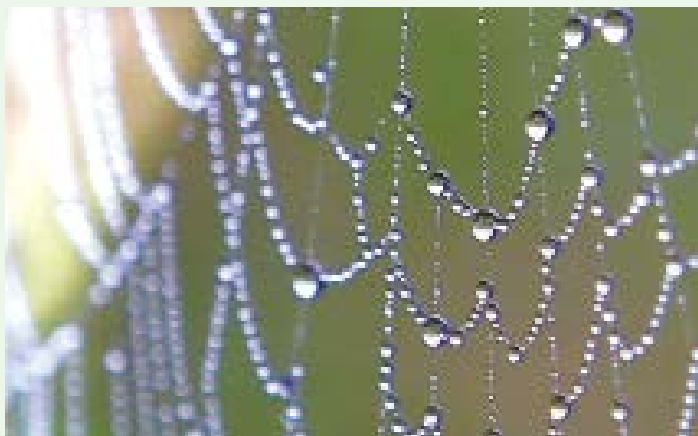
연꽃

이따노 미에 (일본)

진흙 속에 피는 꽃

흔탁한 그 곳을 탓하지 않고
진흙을 뚫고 나와
영원한 사랑의 꽃 피운다

내 예쁜 딸처럼 우아하고 곱게...



거미줄

이따노 미에 (일본)

어울림이다
우리네 삶도 거미줄과 무엇이 다르랴
이슬처럼 청아한 저것을 보라

고통 이겨내고
오붓하게 살아갈 당신과 나
옥구슬처럼 빛나는 거미줄 만들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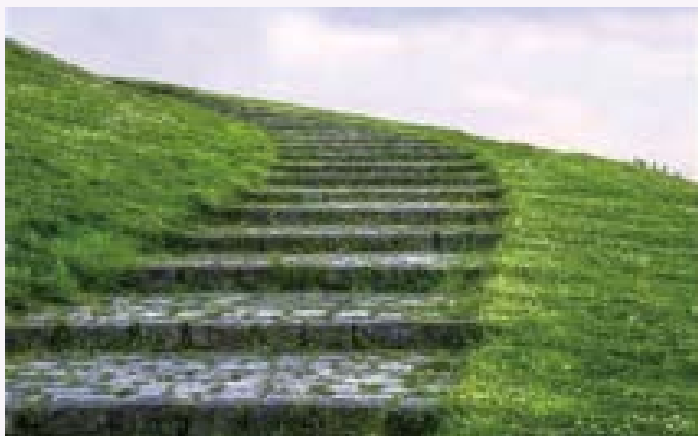
추억

이상관

발끝으로 살금살금
원두막 주인의 음성이 큰소리로 누우고오~~

탱자나무 가시에 찢려가며
두 발은 나락 논을 헤집고 도망쳐 내 달린다

주인 몰래 서리했던
벌레 먹은 복숭아 아썩! 아련한 추억을 부른다



계단

이상관

하나가
둘이 되어 여기까지 왔다

서녘 노을 저기서 우리를 부를 때
내려놓으리라

힘든 계단을 오르듯
우리네 삶이 매일 매일 소풍인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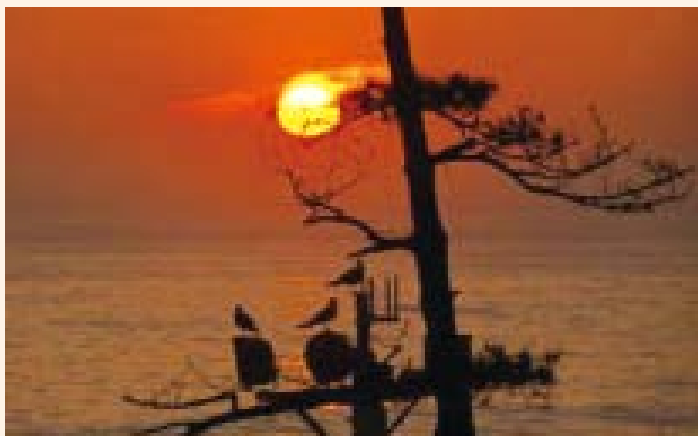
바다

에바 (필리핀)

비릿한 냄새
철썩거리는 파도

바닷물에 풍덩거렸던
필리핀은 기억 속에서만 살고 있다

가족과 함께
소금 꽃 피는 바다 여행 가고 싶다



이민자의 그리움

이정화 (미국 이민자)

태평양이 어깨를 들썩 거린다

한국에서 건너간 미국 땅
시려오는 서녘 노을에 얼굴을 묻고

갈매기 날갯짓에 그리움 한 줌
파도소리가 또 한 줌 떨어내지만
자꾸만 가슴을 적시는 이민자의 그리움



늦둥이

이정화 (미국 이민자)

뒤늦게 태어난 늦둥이

여름빛에 여물고
가을빛에 익어가는 탐스러움처럼

사랑향기로 꽃 피우는
수정 같은 내리사랑 아들
어미의 머리 위엔 희끗희끗 서리 내리고.



이팝나무

하순자 (77세)

그땐 그랬지
이팝나무 꽃 필 때
그곳에서 만나자 했지

흰쌀밥으로
고봉밥 지었던 기억 저 편
숨이 멎듯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양귀비와 별

하순자 (77세)

위잉~ 위잉
꽃 중에 꽃 위에서 맴돌다가

양귀비 꿀통 기웃기웃

붉디붉은
저 입술 속으로 확 빨려 들고 싶다

히스토리

기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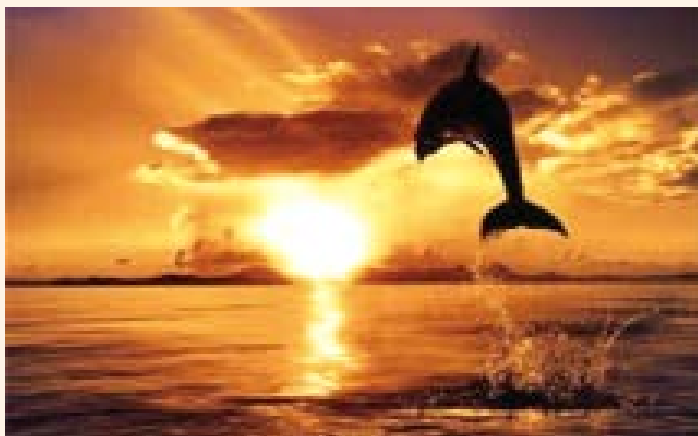
운동화

김민규 (밀성고 1년)

잘 지내니?

신발장에서
오만원에 팔려간 너였지만

수많은 이야기들 길 위에 새길텐데
세상의
어둡고 낮은 곳을 찾아 흰히 비추어 주거라



노을과 고래

박수연 (밀성고 1년)

숫구쳐 오른다
저 힘찬 용맹은 붉은 바다

내 마음처럼
활활 붉게 타 오른다
광활한 바다를 확 집어삼켜버릴 듯



별

박재동 (밀성고 1년)

어둑해진 하늘
까만 밤
비추어주는 별이 되고 싶다

어느새 눈부시다
그 별은
내 미래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무궁화 앞에서

박지훈 (밀성고 1년)

피어나 주소서
보듬어 주소서

천만 송이 꽃이 한 무리가 되듯
우리 민족 모두가 하나 되게 해 주소서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철새

송현주 (밀성고등학교 1년)

어디로 비상하는 것일까
꿈의 등지를 찾아
가뭇없이 길 떠나는 것일까

돌아오라
바람의 여울목에서
죽지에 얼굴을 묻고 젊음 노래하리니



버스

윤찬현 (밀성고 1년)

버스 창가에 앉아 눈을 감는다.

맑은 물소리
열차 지나가는 기적소리 들릴 때

참았던 설움에
창문을 열고 목 놓아 부르리라
보고싶다 친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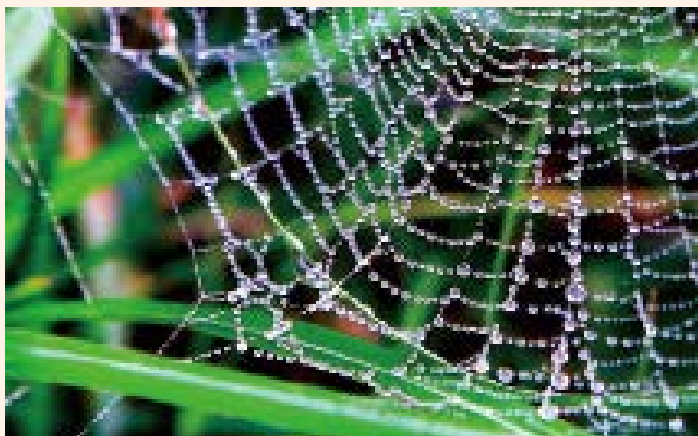


창(窓)

이미나 (밀성고 1년)

백지장 머릿속
당신과 내가 뛰어 노네

따스한 햇살도 아름다운 풍경도 없는
나의 뇌 속에서
그대는 미소 짓습니다.



거미줄

정유진 (밀성고 1년)

은방울 맺혔다

거미줄과 이슬이
서로 맞잡은 그물망은

촘촘한 세월
지나온 어머니의 아픔이다
부모님의 빛나는 마음 발이다.

꿈마중 기자단





풍경

김시영 (밀성고)

길고 긴 계단을 올라서야
비로소 볼 수 있는

저 풍경처럼

길고 긴 시련을 견뎌내면
나에게도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리라



초승달

김현송 (밀성고 1년)

낮달이 졸졸 따라온다
자전거 뒷바퀴를 물고 따라오는 보랏빛 하늘
어스름 새벽부터
하얀 달은
제 빛을 태양에게 주고도
착하고 하얗게 살고 싶어 한낮에 떠있는구나



새싹

김태령 (밀양여고 1년)

땅 위로 고개를 내미는 동안
긴 겨울을 애 태웠다
꽁꽁 언 추위 속에도

따뜻한 봄 부둥켜안은 채
땅속 저 아래서
희망을 불어주는 새싹은 나의 봄이다



날개 달린 잠수함

홍채연 (세종고 1년)

하늘바다의 축복이다
하얗고 보드라운 물고기 떼
날개 달린 잠수함의 지느러미 위에 내 꿈을 펼쳐본다

가끔 센 물살에 구름 꽃 부서지지만
나의 미래를 촘촘히 심어주는
파란 하늘 호수



이슬

서종배

한낮
북적거림이

밤이면 슬픈 이슬이 되어
사바 고통 보듬고

아침 햇살에 몸을 사른다.



동반자

양경호

한 지붕아래 하나다

모양과 생김새가 달라도
제 역할로
각각의 쓰임새가 있으려니

우리네 인간사
저 모양처럼 생긴 대로 살고지고



연꽃

장정순

진흙이
꽃 대궁을 끌어올렸다

오욕에 물들지 않은 청초함
구름의 손이 떠받치던
한 송이 연꽃

두 손으로 부처님 전에 귀의 하나이다



사냥

정수근

강기슭을
거닐다가

소총으로 변신한
물총새
오늘도 명중 했구나



가을 영글다

황여옥

나뭇잎 사이

입 안이 흥건하게
침이 고이는
한 잎 가을을 베어 문다

아삭
장맛비와 새소리가 입안에서 들린다.



상상창고를 마치며..



이상관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보면 모두가 역사인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람답게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사람의 선한 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것 같은 “상상 창고” 참으로 좋았습니다.
글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남은 생애 조심스럽게 베풀며 살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하순자

정말 좋은 분을 만나 인연이 되어 이렇게 시에 대한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었다.
좋은 감정, 착한 마음들 참으로 생소한 시의 인연으로 만날 줄이야.
모임 자체가 다르다.
다문화인들 같이 대화하며, 작가의 작품사진들을 골라보는 재미도 좋았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참 잘 왔다고 생각한다.



전태옥

시?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첫 수업 왔다.

너무 재미있고 즐거움에 그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 버렸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업 역시 아쉬움을 남기고 헤어졌다.

이제 마지막 수업 일만 남았다.

많이도 기대되고 서운하기 그지없다.

좋은 인연들 만나 정이 들고 서로의 사정을 얘기하고

이렇게 좋은 인연들과 어떻게 헤어지지....

그동안 열심히 그리고 정성 가득 담아 진실로 강의해 주신

우리 박서현 강사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손영희

수업을 수료하면서 그동안 살아온 제 인생보다 다문화 가족들과 수업하면서 배움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나라에서도 씩씩하게 부모 봉양하면서 가족을 사랑하며 위하는 마음에 감동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서현 선생님의 지도하에 시에 대한 새로움 배움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서 감사와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사랑에 힘입어 눈 수술해서 힘들었는데도, 무사히 잘 마쳐서 모든 분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구쓰와다 가오루(일본)

처음에는 저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싫지는 않지만 시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한 달 동안 배우면서 “시”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것 같아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자연을 보며
시를 머릿속에 만들어 보는 시간도 문학의 세계에 조금 접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의 내면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분들의 내면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도 배움의 시간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노 미에(일본)

문학적인 재능이 없어서 “시”라는 말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두 번이나 수업을 빠져서 못 따라가는 압박감과 초조함 “시”는 정말
마음이 부드러워야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생활 여유, 마음 여유가 없어서 좋은 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못 만났을 것이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있었기에, 너무나 감사하며 행복했습니다. 잘 못해서 죄송하고요
강사님,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모로 마유미(일본)

처음에 이 모임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에 관해서는 아무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호기심은 있었지만 “못하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단 도전해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도전 정신으로 배웠지만, 오래는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한국 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못할 때의 소외감, 전문적인 용어 표현 등 언어의 벽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 등 그렇기에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되겠나” 또 그만두게 되는 것 아닌가? 를 항상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다문화와 함께”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한 주 한 주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해하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의 지도하에 작품을 만들었을때,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어머,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느꼈고 못해도 “잘한다, 잘한다. 와~ 대단하다”를 연발해 주시는 선생님과 스텝 분들이 계셨기에,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예진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도 전태옥 강사님만 믿고 따라왔습니다. 함께 배우는 분들이 다문화인이 많아서 힘이 되었습니다. 여태 살아오면서 이번 수업이 참 재미있고 뜻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를 전시하면 저의 남편과 아이들을 불러서 사진을 찍고 자랑도 해야겠습니다. 강사님 세 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와 사진, 밀양이 춤추다

2019년 10월 25일 발행

2019년 10월 25일 인쇄

지은이 밀양시민

펴낸곳 태화출판인쇄

밀양시 시청로 43(내이동)

Tel. 055-352-5689